

깨어나는 중국 불심, 세계불교 중흥 이끌까

7년만에 방문한 중국 북경은 여전히 온통 회색빛이었다. 맑은 날씨라고는 하지만, 희뿌연 스모그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의 매연, 바다까지 드러낸 메마른 강물은 점점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느끼게 했다. 도심 곳곳에서 한 층 한 층 몸집을 키워가는 거대한 빌딩들은 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낸 거인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듯 했다.

11월 14일, 북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사원인 옹화궁(雍和宮)은 많은 불자들과 관광객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특히 예년과 달라진 점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향을 올리며 기도한다는 점. 7년 전에는 나이 든 신도들이 주변을 의식하며 다소 굳은 모습으로 향을 올리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군인, 공무원 할 것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배하고 있었다. 예배하는 모습이 엄숙하고 정성이 담겨 있음을 볼 때, 중국 불자들의 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744년(건륭 9년) 건륭황제가 아버지 옹정 황제를 추모하며 건립한 옹화궁은 '나라를 다스리고 변방을 편안케 하며, 몽고와 티베트지역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창건이념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었다. 티베트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예복하고 간경하며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강·은 양면적인 정책을 웅변하는 듯 했다. 스님들의 표정은 티베트불교에 대한 탄압의 여파인지 무척 어둡게 보였다.

중국 불자들의 불심은 15일, 북경시 서산(西山)에 위치한 불치(佛齒: 부처님 치아)사리 성지 영광사(靈光寺)에서도 확인되었다. 사리를 모신 대탑 앞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향과 촛불이 타오르고 절하는 신도들로 북미고 있었다. 중국 종교국의 배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북경 영광사에서는 큰 법회가 있을 때마다 종사 이운식이 재현된다. 사리탑을 배경으로 한 영광사 사부대중의 의식은 장엄하고도 간절하다.

려로 대탑 속으로 들어가 불치사리를 친견하면서, 이곳이 과연 중국인의 불심을 되살리는 성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법원사(法源寺)는 중국 스님들의 정진을 가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원이었다. 1956년 창설, 66년에 문화혁명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8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설된 법원사 불학원(4년제 승가대학)에는 300여 학인스님들이 경학을 연찬하고 있다.

(사진 중앙),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 '만불루(萬佛樓)'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스님들은 묵안하며 공양을 하고, 신도들은 검은 법복을 입고 합장하는 모습에서 깊어진 불심을 읽을 수 있었다. 前 방장 정혜스님(중국불교협회 부회장)과 명해 방장은 화교들의 보시금으로 대규모 불사를 일으키는 한편, 선수련회와 선차(禪茶)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인구 6000만 여명에 달하는 하북성에 선풍(禪風)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 여름 상해화동(上海華東)사범대 종교문화연구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종교인구는 3억여 명으로 추정돼 정부 자료보다 무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 2000만~30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던 종교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개혁·개방이후 빈부격차와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의 불자는 1억5000만여 명, 사찰은 1만3000여 곳, 스님은 50만(티베트불교 포함) 여명으로 추정된다. 13억 중국 인구가 3억 정도 오차가 있다는 분석이 있듯이, 불자 인구 역시 그보다 훨씬 많은 2~3억에 달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불교협회(회장 一誠)는 2006년 3월 황주에서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1200억원을 투입해 북경에 중국 최초의 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혁명(1967~1977)기간 중 파괴된 불교 유적과 유물을 복원하는 등 불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러한 외형적 틀을 갖추는 동시에 간화선 등 수행법과 영산재 등 불교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일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불자 인구가 볼 때 세계 최대인 중국에 불교가 되살아나는 것은 중화권은 물론, 세계불교의 중흥으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기복신앙과 불교학 위주로 발전의 토대를 닦고 있는 중국불교가 깨어나는 날, 지구촌 곳곳에 법음(法音)이 울려 퍼질 것이라 기대감을 갖고 북경공방을 떠났다.

중국 북경=김성우 기자 budhopia5@hanmail.net

사찰·유적 복원, 수행·불교문화 원형찾기 안간힘

젊은층 깊어지는 불심...불자 인구 폭발적 증가

현대식 건물에 지어진 불학원에 강의실과 도서관을 잘 갖춰져 있었다. 도서관에 안치된 중국불교협회 초대 회장 조박초(趙朴初) 거사의 흉상을 보니, 이곳에서 심법과 교학을 연마한 스님들이 장차 중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리라 확신이 든다.

17일 하북성 조현에 위치한 백림선사(柏林禪寺)는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 화두로 유명한 조주 선사가 주석하던 선찰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元)나라 때 조성한 30m 높이의 7층 전탑인 조주선사탑과 도랑 곳곳에 서있는 측백(柞)나무는 변함 없건만

중국을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교유적과 사원을 복원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1982년 12월 신헌법 제36조에 '종교의 신앙자유'를 보장한 이래, 50여년간 사회주의 체제속에서 숨죽여왔던 중국에서 서서히 불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사천성 대지진 참사 이후 불교는 더욱 중국 인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대지진이 발생한 며칠 뒤부터 지진 희생자와 이재민을 위한 대법회와 경전 독송법회를 개최하는 등 민심을 추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